

『看羊錄』의 實記文學的 特徵

이 채 연*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소재의 일회성과 비유기성 |
| II. 實記의 文學的 接近 | 3. 움니버스 구성과 주제의 집중화 |
| III. 『看羊錄』의 敘述構造와 그 特徵 | 4. 상황진술과 정감표출의 詩文 흔효 |
| 1. 체험공간의 사실성과 문학적 진실 | IV. 맺음말 |

I. 머리말

임진왜란은 주자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조선은 임란 7년의 참화를 겪는 동안에 엄청난 수의 인명이 살상당했고, 또한 일본으로 잡혀가기도 했다.¹⁾

* 부산수산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 1) 임진왜란 당시 조선인의 피랍자 수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확하게 기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밖에 할 수가 없다. 鄭希得의 『月峯海上錄』에는 10만명이란 기사가 나오며, 경상도 司業 鄭信道の 상소내용(『광해군일기』 9년 4월)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全以生이 薩摩지역에 잡혀온 포로만도 3만 7천명이라고 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수의 조선인이 잡혀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동준보는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5-6만 정도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가 피랍되어 갔을 것이다. 內藤雋輔, 「壬辰・丁酉役における被擄朝鮮人の刷還問題について」(下), 『朝鮮學報』 34집, 1965. 1, 132-133쪽. 참조.

임진왜란 기간 중 이처럼 많은 조선인이 피랍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것은 일본측의 치밀한 조선 침략 전략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은 조선 침공에 앞서 전투부대와는 별도로 圖書部, 工藝部, 捕虜部, 金屬部, 寶物部, 畜部 등 6개의 특수부대를 편성하여 후방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약탈하게 하였다.²⁾ 공예부와 금속부에서는 선진 공예품과 금속활자를 약탈하고, 그 공인들을 납치함으로써 그들의 도자기 문화와 금속문화를 꽃필 수 있게 하였다. 도서부와 포로부는 일본의 학문발전은 물론 江戸문화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일본은 임란 전쟁에서 엄청난 병력과 물자의 손실을 보고 명분없이 철수를 했지만,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약탈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침략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잡혀간 피랍인들의 운명은 크게 3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捕虜 刷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밖에 없었던 경우.³⁾ 둘째 노예로 팔려간 가장 비극적인 경우.⁴⁾ 셋째, 다행히도

2) 최영희, 「일본의 침략」, 『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324-325쪽 참조.

3) 이 경우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데, 하나는 일본인과 결혼하여 그곳에 귀화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일본인의 고의적인 방해에 의해서 포로해환사가 일본에 왔을 때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억울하게 일본에 남게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부류에 속하던 간에 이들이 누렸던 일본에서의 생활은 윤택한 것이 못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최하층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특이하게 일본 도자기의 원조가 된 陶工 李參平, 12세 소년으로 붙잡혀 가서 29세에 熊本の 本妙寺 第3代 主旨在 된 呂大男 등과 같은 인물도 있었다. 이에대해서는 内藤簡輔,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擄人遺聞」 『朝鮮學報』, 49집, 1968. 10. 참조.

4) 이 경우는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조선인을 강제로 납치하여 매매한 경우이다. 임란 당시 일본은 조선 출병으로 인하여 일본 내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때문에 이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조선인들을 이용하여 충당하고자 했다. 임란 당시 승려로서 조선에 출병했던 慶念이 부산에서 본 인신매매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상인이 왔는데, 그 중에는 인신매매자들도 섞여 있었다. 이들은 男子老若을 사가지고 새끼줄로 목을 얹어가지고 뒤에서 재촉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매질을 하는 상황은 마치 죄인을 다루는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사 물아가지고 마치 원숭이떼를 엮어서 걷게하는 것과 같았고, 소나 말을 다루 듯하는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慶念, 『朝鮮日日記』, 慶長2년(1597년)7월 9일)

위의 경념의 『朝鮮日日記』의 기록은 당시 조선인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귀환한 경우가 그것이다.⁵⁾ 이들 포로 조선인들 중에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의 전제 조건의 하나인 포로채환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그대로 일본에 억류되고 말았다.⁶⁾ 이들 피랍인들이 겪었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황폐감은 전란의 피해와 처절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의 피로인 중에는 그들의 이러한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는데, 姜沆의 『看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慶得의 『萬死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등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임진왜란 당시 강제로 끌려 갔던 수많은 조선 포로들의 일본 내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체험 실상을 적은 私의 體驗記가 아니라 조선 포로의 생활상을 함축 대변하고 있는 共同 體驗記의 의미를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신음소리는 수난과 고통으로 얼룩진 인간 삶의 진실한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 이상의 의미도 지닌다.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인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 장수들이 노예사냥에 앞장 섰기 때문이다. 상인들에게 팔려간 조선인들은 일본으로 끌려 가거나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로 팔려가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이탈리아 선교사에게 팔려 로마에까지 가서 그곳에 정착한 안토니오·포레아란 사람도 있었다.

- 5) 이 경우는 포로채환사들에 의해서 조선으로 귀환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신사가 일본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목숨을 걸고 일본을 탈출한 사람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본고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포로 실기문학의 작가들인 강항, 정회득, 정경득, 정호인, 노인 등이다. 그외에도 이들의 작품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데, 이들은 통신사 일행에 의해서 채환된 포로들보다 남다른 귀환의지를 갖고 있던 자들이라 할 수 있다.
- 6) 조선과 일본 간의 포로채환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인 1604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선조의 왕명을 받은 惟政이 德川家康과 회합을 한 후 3천 여명의 포로를 채환했다. 그 뒤 세 차례의 통신사를 파견하여 약 4천 5백여명을 본국으로 귀환시켰으나, 채환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임청난 수의 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포로채환의 임무를 띠고 일본에 파견된 세 차례의 통신사는 다음과 같다. 1607년(선조 40년) '修交回答兼刷還使'로 呂祐吉을 正使로한 사행과, 1617년(광해 9년) 吳允謙을 正사로한 '大版平定回答兼刷還使'와 1624년(인조 2년) '家光襲職使'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포로채환사로 일본을 다녀온 통신사들의 사행기록(慶運의 『海槎錄』과 吳允謙의 『東槎上日錄』, 李景稷의 『扶桑錄』, 姜弘重의 『東槎錄』)이 남아 있어, 이를 통해 당시의 포로채환 실상을 살필 수 있다.

이 중, 강항의 『看羊錄』은 앞의 작품들 중에서 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독창성에서 다른 작품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⁷⁾

작가 姜沆(1567-1618)은 진주 사람으로 字는 太初요 號는 睡隱으로 私淑齋 希孟의 5세손이다. 선조 21년(1588)에 진사과에 합격하고, 26년(1593)에 문과에 급제한 후 교서관 박사 및 공·형조좌랑을 지냈다. 그는 牛溪 成渾을 자주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⁸⁾ 선조 30년(1597)에 정유재란이 나자 李光庭의 종사관으로 부임하여 의병을 모우던 중 적이 이미 영광을 침범해 왔다는 소문에 이순신이 있는 통제영으로 갈 계획 하에 집안 사람들과 배를 탔다가 왜군에 피납되었다. 가족과 함께 일본 이에(伊豫)로 압송되었다가 대판(大阪), 복현(伏見)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근 4년을 일본에 체류하다 1600년 5월에 경도(京都)를 떠나 부산에 도착했다. 강항은 비록 포로의 몸으로 일본에 유배된 삶을 살았지만 유학자로서의 품격과 기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인물이었다.⁹⁾

『看羊錄』¹⁰⁾은 이 기간 동안의 체험을 기록한 글로 정확하게는 1597년 9월

7) 강항의 『간양록』은 임란 이후 많은 유자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일부가 실록에도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에 이미 상당히 알려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월봉해상록』, 『만사록』, 『정유피란기』는 내용의 일부가 『간양록』을 모방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세 작품 간에도 유사점이 많다는 점에서 작품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전하는 『금계일기』는 앞 뒤 부분이 떨어져 나가버린 관계로 노인이 중국에 머물 때의 체험이 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억류시의 포로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는 『간양록』을 포로 실상을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고, 작품 분석의 텍스트로 선정하기로 했다.

8) 『睡隱集』, 「睡隱附錄」, 行狀.

9) 일본에서의 강항의 행적에 대해선 선조 40년(1607)에 조선인 포로 해환을 위한 회답사로 일본을 다녀온 慶淵의 『海樑錄』의 기록에서 그 단면을 살필 수 있다. “강항은 포로된 지 4년이 되도록 그의 용모나 의복을 조금도 변이지 아니하고 본국에서의 차림새 그대로였다. 조용한 한 간 방에 혼자 앉아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것으로 소일을 하고 왜인들과 서로 말을 건내는 적이 별로 없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그의 행장에도 나오는 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일본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과 문명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던 인물로 평가된다.

10) 현전하는 『간양록』의 판본은 필사본, 목판본, 목활자본이 있다. 필사본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81장 1책으로 되어 있다. 목판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처음 간행된 것은 효종 7년(1656)에 간행된 『수은집』 6권 6책 중 5책의 『간양록』이

(선조 30년, 丁酉)에서 1600년 5월(선조 33년, 庚子)까지이다. 이 글은 강항이 복현성에 있을 때 왜국의 輿地, 官號, 軍制, 形勢 등을 기록하여 선조에게 올린 「賊中封疏」¹¹⁾와 자신이 일본인과 친교하면서 알게된 「賊中聞見錄」, 자신의 포로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涉亂事迹」, 조선에로의 귀환이 결정된 뒤 대마도에 도착하여 남아 있는 피로인들에게 보내는 「告俘人檄」, 고국에 도착하여 왕 앞에서 적의 사정을 설명한 「詣承政院啓辭」로 짜여져 있다. 이글은 원래 강항이 ‘죄인이 타는 수레’란 뜻을 사용하여 『市車錄』이라 하였다. 그뒤 후학인 尹舜舉가 권필이 강항을 예찬한 시구(節爲看羊落)에서 차용하여 절개를 칭송하는 뜻에서 『看羊錄』이라 한 것이다.¹²⁾

『看羊錄』을 비롯한 捕虜 實記文學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 문예물의 연구성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편 일천한 편이다. 기존의 연구는 『看羊錄』에 관한 것이 몇 편 있을 뿐, 나머지 작품에 대한 연구는 서평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연구가 되지 않은 작품도 있다. 『看羊錄』에 대한 연구도 인상비평의 수준을 넘지 못한 연구가 있기는 하나, 몇몇 연구는 『看羊錄』에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¹³⁾

있다. 서울대도서관 一簫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두 번째 나온 것은 효종 9년(1658)에 간행된 『수은집』 4권 4책 중 3책의 『수은 간양록』이 있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본과 일사문고본이 있다. 목활자본은 간행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은 목판본과 같다. 연세대, 장서각본이 있다. 위 각 판본은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필사본이 먼저 나오고 그뒤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명식, 『간양록연구』-전쟁문화적 관점에서, 국어국문학논문집 18집, 서울사대 국어국문학회, 1982. 참조), 규장각본(『한국문집총간』 73권에 영인되어 있음.)을 저본으로 한 번역본으로 민족문화추진회 간행의 『해행총재』에 수록된 것이 있다. 본고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 번역본을 텍스트로 하였다.

- 11) 「적중봉소」는 강항이 본국에 보내기 위해 3본을 만들었다. 무술년(1598년)에 伊豫州에 있을 적에 金石福을 통해 부친 것이 1본이고, 기해(1599년)년에 복견성에 있을 때 중국인 王建功을 통해 부친 것이 또 1본이고, 같은 글을 다시 써서 辛挺南에게 부탁한 것이 1본이다. 이 중 왕전공과 신정남에게 봉부한 것은 김석복 편으로 붙인 내용을 포함하여 그 뒤의 일까지 기록한 것이다. 이 중 왕에게 직접 전달된 것은 완전공을 통해 붙인 것이다. 선조가 그 글을 받고는 깊이 탄상하고 비변사에 내렸다고 한다. (『간양록』, 「적중봉소」)
- 12) 윤순거, 『간양록』 발문.
- 13) 임진왜란과 문학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金泰俊(『임진란과 조선문화의 농점』, 한국연구원, 1977)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김태준의 연구는 임진왜란의 이미

본고는 연구 목적을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看羊錄』의 문예미학적인 서술상의 특징 규명에 두고 그 세부적인 양상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實記의 文學的 接近

임진왜란은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가져다준 사건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민족적 수치요 개인적인 수난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를 소재로한 체험 기록물 또한 전래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국가에서는 實錄을 비롯한 역사서나 공식문서인 謄錄 등을 작성하였고, 양반 사대부들은 개인의 시각에 입각하여 그가 보고 듣고 느낀 참상과 감회를 산문이나 시가의 형태로 남겨 놓기도 했다. 문자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일반 민중 또한 그들이 보고 들은 전쟁 경험을 이야기를 통해 전승시켰다. 그들은 일본군의 잔학상과 관군의 무능 그리고 조정의 유약한 모습 등을 성토했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병의 활동과 같은 무무담을 통해 자신들의 체

지와 한일관계, 일본의 도자기문화, 조선의 文籍 및 인쇄술과 江戸文化, 피로학자와 일본의 신유학 등 문학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김교수의 연구는 비교문화적 입장에서 폭넓게 이루어져 있어 임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수수관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포로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蘇在英(『임란과 피로일기』,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교수는 『간양록』, 『월봉해상록』, 『금계일기』를 대상으로 이들 작품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작품에 대한 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간양록』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로는 김명식(『간양록연구』-전쟁문학적 관점에서, 국어국문학논문집 18집, 서울사대 국어국문학회, 1982)과 김기빈(『수은 강항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5)의 연구가 있다. 김명식의 연구는 『간양록』을 전쟁문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으며, 김기빈의 연구는 『간양록』을 통해서 강항의 애국사상을 추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포로 실기문학의 존재와 가치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연구의 접근방법이 다분히 작품의 설명과 분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들 작품이 갖는 문예미학적인 성격 규명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밖에 본격적인 문학연구는 아니지만 辛鎬烈(『看羊錄』해제, 『海行總載』권2, 민족문화추진회, 1967.)의 해제가 있다.

험은 물론 구원자적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마음을 구비전승물 속에 투영시켜 놓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 체험이 문자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 체험이 즉각적으로 관념이나 사상으로 구축되기 보다는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더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체험은 사상이나 관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 생체험은 그 본질 속에서, 그 의미 안에서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전달된다. 실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정조는 체험 당사자의 모든 직관을 형성한다. 그는 기쁨과 고통 사이를 왕래하는 강한 삶의 감각을 통하여 인간 실존의 상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¹⁴⁾ 그러므로 특별한 창조적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체험의 양태에 따라서 미적감각 내지는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는 문학성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문학적 형상화는 체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감각을 보존하고 강화시키며, 또 일깨워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체험이 전쟁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충격의 강도에 비례하여 보존의 깊이가 또한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가장 실감있게 생생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實記文學이라고 할 수 있다. 실기문학은 傳, 記, 錄 등의 산문양식을 이용하여 역사적 실존인물이 겪은 체험의 실상을 글로 기록하고 표현한 것이다. 또한 실기문학은 특이한 인간의 체험 가운데 검증 가능한 대상만을 소재로 하여, 그 사실을 가능한 한 실상 그대로 전달하려는 목적에 의해 씌여진 글이다.

이러한 실기문학이 임란을 배경으로 하여 많이 작품화될 수 있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전쟁체험이라는 소재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이 경험한 전쟁의 실상과 체험의 처절성은 그 자체의 묘사만으로도 순전히 허구적 상상력에만 의존해서 만들어진 작품보다 더 큰 감동을 독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작가들은 굳이 인위적인 구성 위주의 허구적 형상화를 시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허구보다는 사실에 충실한 묘사를 통해 문학적 진실을 구현하려 했을 것이다. 둘째, 전쟁 중에 겪게된 체험을 잊지 않고 작품화하려

14) Wilhelm Dilthey, 『Poetry and Experience』(김병욱 외 옮김, 『문학과 체험』, 우리 문학회, 1991), 43-44쪽.

했을 경우, 이를 문학적 수식이나 장식을 통해 조탁할 수 있는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실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실기문학이 상상적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세째, 그들이 겪은 처참한 체험을 잊지말고 기억해야겠다는 작가의 기록정신과 역사의식이 작품성에 선행되었던 점도 실기문학이 양적으로 팽창되었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¹⁵⁾

임란을 배경으로 한 기록 중에는 『王朝實錄』이나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 국가의 공식적인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趙慶男의 『亂中雜錄』, 申昶의 『再造藩邦志』 등과 같은 개인에 의해 기술된 역사가 있다. 또한 ‘실기문학’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柳成龍의 『懲毖錄』, 吳希文의 『瑣尾錄』, 李魯의 『龍蛇日記』, 柳珍의 『壬辰錄』, 趙靖의 『壬亂日記』, 李舜臣의 『亂中日記』, 이정암의 『西征日錄』, 작가 미상의 『壬辰筆錄』, 李擢英의 『征蠻錄』, 柳希春의 『眉岩日記』, 金涌의 『雲川樞從日記』, 姜沆의 『看洋錄』, 鄭希得의 『月峰海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慶得의 『萬死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등이 있다. 그 밖에 倡義錄과 義烈錄 등의 전기류도 있으며, 개인의 문집에 임란의 전쟁상황을 기술한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역사서를 제외한 이같은 많은 실기문학이 임란 당시나 그 직후에 작품화될 수 있었던 점은 실기문학이 역사적 사건 혹은 작가의 역사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진정한 문학은 역사적 사실 위에 존재한다. 사람을 관찰하는 특별한 방식, 지속적인 인물 유형들, 인간 행위의 복잡성, 한 시대 및 국가의 도덕적 감정에 따른 해결방식, 그리고 주어진 시대의 상징체계 등은 문학이 다루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다. 삶을 재현하는 이러한 문학의 표현방식의 기법성이 모두 역사적 사건을 질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은 역사적 바탕에 가장 충실한 장르가 되는 셈이다.¹⁶⁾ 이런 의미에서 실기문학은

15) 이에 비해서 상상적 문학(Fiction Literture)에 해당하는 소설과 전, 가사, 시가 등은 전쟁 와중에서는 활발히 작품화되지는 못하고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본격화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 장르의 작품은 그것을 조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임진왜란과 같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전쟁터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다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16) 빌헤름 딜타이, 앞의 책, 41쪽.

문학의 역사적 진실 그 자체의 본질에 가장 밀접히 접근해 있는 문학양식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실기문학은 당시의 참상을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굴절시킴이 없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문학분야 보다는 역사분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¹⁷⁾ 그러나 실기문학에는 소재로서의 역사적 사실성 뿐만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인 정감과 세계관이 드러나 있어 문학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전쟁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명보존에 대한 절박한 심리상태나 적에 대한 적개심, 가족에 대한 애정, 민족 자존에 대한 아쉬움 등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개인적 정서가 역사의 기술방법이 아닌 문학적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문학적 성과를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III. 『看羊錄』의 敘述構造와 그 特徵

1. 체험공간의 사실성과 문학적 진실

『看羊錄』은 事實의 체험 그 자체만의 서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허구 중심의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적인 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看羊錄』과 같은 실기문학에서의 ‘事實’이란 객관적 현실성을 가진 존재나 현상으로, 실재의 공간과 시간의 속에서 구현되었거나 가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¹⁸⁾ 이런 점에서 사실(현실)을 소재로 하되 그것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적 정서나 사상에 의해 재편집한 허구적 창조물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허구물의 경우, 설사 그것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손치

17) 실기문학이 갖는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임란 배경의 실기물들이 문학분야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역사학 쪽에서 다루어진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게 한다. 즉,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임란 배경의 실기물들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기 보다는 역사적인 사료적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다. 이 점은 문학분야의 연구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18) 류기룡, 『한국기록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16-31쪽.

더라도 그것은 결국 작가의 경험질량에 따른 상상적 대치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산문일지라도 ‘현실 그 자체를 중시하는 실기문학’과 ‘개연성에 의존하는 허구물’과는 글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골격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看羊錄』에서 중시되는 것은 작품의 예술성보다는 소재의 현장성과 참신성 그리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작가정신이다. 이런 의미에서 『看羊錄』의 실기문학적 특징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르론적 고정관념이나 평가기준에 의해서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산문정신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看羊錄』의 문학적 가치는 작가가 경험한 세계가 실상 그대로 얼마나 호소력 있게 독자에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점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실세계에서 경험한 작가의 사실적인 체험이 문학적 여과장치에 의해 굴절됨이 없이 독자들에게 실감있게 전달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看羊錄』은 그 자체의 의미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위에서 『看羊錄』의 문학성을 찾고자 한다.

『看羊錄』을 비롯한 『錦溪日記』, 『萬死錄』, 『月峯海上錄』, 『丁酉被亂記』는 작가가 실제 경험한 포로 체험이 編年體와 紀事體의 서술방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편년체적 서술은 시·공간의 추이에 따른 일기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부분은 그 전개과정이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날 그날의 파편적인 사건들이 소재로 구성된다. 그리고 소재로서의 일회적 사건은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통해 축적됨으로써 주제를 구축시키는 매개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看羊錄』을 비롯한 捕虜 實記文學의 양과 질은 체험자의 경험 세계와 비례하기 때문에, 작품의 시작과 끝은 작가의 포로체험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작가는 생체험을 통해서 관찰되고 지각된 대상만을 중심으로 서술하거나 묘사하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 의식까지도 표출하게 된다. 이에 비해 기사체는 편년체적 기술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체 역시 작가의 개별 체험과 사상을 일관된 논리에 의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칭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捕虜 實記文學은 체험자 시각을 통해서 생활사의 자세한 부분의 묘사와 특수한 체험을 편년체적으로 기술하고, 편년체로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사체의 방식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서술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看羊錄』은 그 시점이 1인칭의 체험자 시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주체는 당연히 작가가 자신이 된다. 작품의 양과 질도 작가가 접한 생체험의 폭이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포로 체험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단순한 시간적인 양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看羊錄』은 작가가 경험한 생체험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사실적인 실체감과 정서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서 그 문학적인 작품성이 결정된다. 때문에 작가가 관찰하거나 체험한 경험의 질과 그것의 소재적 특이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작가의 섬세한 문필력이 무엇보다도 중시된다 하겠다. 그 이유는 실제적 사건과 사실을 가능한 한 경험한 그대로 서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학적 진실이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형의 아들 가련(可憐)은 나이가 여덟 살인데 주리고 목말라서 찢 소금 물을 마시고 구토 설사하여 병이 나자 적이 물 속에 던지니,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오래토록 끊어지지 아니 하였다.¹⁹⁾

강항은 정유년 9월 14일에 왜군이 영광군을 급습해 오자 가족과 함께 배를 구해 피난길에 올랐다. 이순신이 있는 통제영으로 가던 중 9월 23일 왜선을 만나 피랍되었다. 그 과정에서 강항은 부친이 탄 배와 헤어지고 그의 형제와 딸, 조카 등과 함께 일본으로 이송되게 되었다. 강항 형제와 가족들은 9일동안 물 한모금 먹지 못하고 일본으로 이송되던 중 배 위에서 어린 조카의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어린 조카가 먹지 못해 고생하는 것도 역울한데 왜군이 산 생명을 그대로 바다에 던져 죽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어린 조카의 죽음을 목도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작가 자신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처절한 심사를 경험한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위 글에서는 문학적인 비유나 수사를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생체험의 현장감만 드러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으로

19) 강항, 「섭관사적」, 정유년 9월 24일.

하여금 체험의 사실성과 감정의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비참함과 극한 상황은, 있는 그대로의 묘사만으로도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강항의 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적이 물에 던지니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않았다.”는 표현도 사실의 기록 그 자체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간절한 이러한 서술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은 사실 그 자체의 서술만으로도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수식은 그 표현의 문학성을 높일지는 몰라도 작가 경험의 진실성을 전달하는데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看羊錄』은 그 서술상 특징의 하나가 사실성을 전제로 진실성을 구현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작품은 크게 픽션 문학과 네픽션 문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픽션문학은 사실성(factuality)에의 구속 없이 상상력에 의한 창조라는 방식을 통해 진실성(reality)을 지향하는 것이고, 네픽션문학은 이와 대조적으로 사실성을 전제로 진실성을 추구하는 문학이다.²⁰⁾ 이중에서도 픽션문학은 다양한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성층적인 고도로 복잡한 조직체이다.²¹⁾ 특히 서사문학의 경우, 이질적이고 서로 동떨어진 비연속적 요소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시킨 것²²⁾이기 때문에 창작 주체에게 논리적인 통일성을 요구하게 된다. 즉 작가는 개인적 표현, 매개 수단의 인식과 개척, 실용적 목적의 결핍, 허구성²³⁾ 등을 통해서 독자에게 그가 현실적인 인생을 읽고 있다고 확신케하는 환상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한다면 『看羊錄』은 픽션문학에서 요구되어지는 논리적인 구성이나 정제된 구조와 같은 치밀성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훨씬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과 수사의 화려함 또한 픽션문학에 비해 훨씬 절제되어 있다. 『看羊錄』은 작품외적 소재나 사건을 작품내적 질서

20) 류기룡, 『한국기록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13쪽.

21) 르네 웰렉/오스틴워렌(김병철 역),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2, 38쪽.

22) 루카치(반성환 역), 『소설의 이론』, 삼철당, 1985, 107쪽.

23) 르네 웰렉/오스틴워렌, 앞의 책, 38쪽.

위에 그대로 일치시킴으로써 진실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픽션문학과는 대조적이다. 이 점이 『看羊錄』을 비롯한 捕虜 實記文學의 서술 상의 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看羊錄』은 오늘날의 문학관에서 볼 때는 덜 다듬어진 양식이지만, 당시로서는 조선조 지식인의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문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성을 구현하려는 ‘述而不作’의 문학적 태도를 통해 작가의 기록정신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소재의 일회성과 비유기성

『看羊錄』의 창작의도는 처음부터 작가 자신의 포로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체험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포착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는 작가의 체험세계가 회귀한 것이거나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기 본래의 귀속집단 전체에게 반드시 알려야겠다는 작가의 기록정신에 연유되기도 한다.

『看羊錄』은 작가가 경험한 대상만을 소재로 하여, 그 소재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기로 씌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일기는 하루 하루를 지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정취나 필자의 사고 등을 형식의 제약 없이 逐日記錄하는 것이다.²⁴⁾ 이처럼 그날 그날의 파편적인 기록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과 행위가 날마다 반복되어 서술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간은 물론이요, 인물이나 사건, 지명, 공간 및 작가의 감정 등이 동일할 수가 없다. 이 모든 대상과 소재는 자연적인 질서 위에 순차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작가는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른 사건들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看羊錄』에서 변

24) 그런데 ‘日記’라는 제명의 글이 모두 생활잡감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隨筆’이라는 용어가 원래 양식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집필자세의 의미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기’라는 용어도 遊記의 성격, 歷史記錄物的 성격, 陳中日記의 성격, 讀書記의 성격, 生活手記의 성격 등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金聲振, 「朝鮮後期小品體 散文研究」,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1991, 89쪽.

하지 않는 것은 ‘나’로 표현된 서술자의 등장과, 그 서술자의 변하지 않는 일관된 관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看羊錄』에서의 소재는 자연의 질서 속에 순환되어지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작가가 취사선택하여 한 편의 작품으로 구조화한다 하더라도 소재와 소재 사이의 유기적인 짜임새는 약화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작품의 소재가 일회적인 기능만으로 쓰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점이 『看羊錄』의 서술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문학성이 픽션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여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5월 그믐에 격문에 따라 부임하니. 이상공(이광정)은 남원에 있으면서 우방(友放)을 감검(監檢)하고 나에게 운반을 독촉하라고 명하였다. 7월 그믐 사이에 통제사 원균이 한산도에서 패전하여 한산도가 함락 당하였고, 8월 보름경에 적의 군사가 이미 남원을 침범하여 포위 공격한지 3일만에 양총병은 포위망을 돌파하고 북으로 나오니, 성은 끝내 함락되었다…… 본군으로 돌아와 전군수 순찰사 종사관 김상준과 함께 격서를 전달하여 의병을 수합하니, 思漢(조국을 생각하는 선비)의 선비가 수백명이 왔다…… 9월 14일에 왜적은 이미 영광군을 불태우고 산을 수색하고 바다를 훑어 사람을 도살함으로 나는 밤 2시경에 배를 탔다. 그런데 부친이 본시 배멀미를 걱정하는 처지인데다 배가 작아서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季父의 배에 옮겨 모시고, 종형제는 부친이 탄 배가 좁아서 탈 수 없으므로 마지못해 두 형수 및 장형수, 처조부, 처부모 및 나의 처, 첩이 함께 탄 배에 탔다. 15일에 두 배가 묘두(猫頭)에서 함께 자는데 피란하는 배가 도인 것이 거의 백여척이었다. 16일에도 묘두에서 자고, 17일에는 비로초(飛露草)에서 잤다. 18일에 종형 형이 선전관으로써 표신을 받들고 이순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수영에서 선소(船所)로 달려 왔다. 9월 24일. 3일이 지나자 왜적은 통역을 대동하고 와서 물기를 “누가 바로 正妻냐?” 하니, 부인들이 다 자수하자 왜선으로 몰아 올라가게 하고 나의 형제를 옮겨서 길으면서 말하기를, “장차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하였다.

망형이 죽던 날에 족지 하나로 나에게 부탁하길, “네가 인간에 살아 있으니 과부된 나의 아내는 힘입을 데가 있구나.” 하였는데 누가 갑자기 이 지경을 당할 줄이야 생각했겠는가? 삶과 죽음을 생각하니 비통하기 그지 없지만, 나 역시 목숨이 어느 때까지 붙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처지였다…(중략)²⁵⁾

위 글은 『看羊錄』의 「涉亂事迹」 앞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피랍 무렵인 5월 그믐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9월 14일부터 그 이후는 일기별로 사건의 양태에 따라 서술의 분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 글의

25) 강항, 『간양록』, 「섭란사적」.

서술 주체는 1인칭의 ‘나’인 체험 당사자다. 인물로는 이광정, 원균, 양충병, 이순신 등의 역사적 실존인물이다. 그 밖에 강항과 같이 피란길에 올랐던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중요 사건으로는 원균의 패전, 남원성의 함락, 의병모집, 왜병의 잔악상 등이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인 1인칭 “나”를 제외하면 작품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도 작품의 성격에 영향을 줄만큼 반복적으로 환기되지 않는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단지 작가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기능만 하며, 시간은 작가 여정의 추이를 나타내줄 뿐이다. 강항이 경험했던 공간(순천, 안골포, 대마도, 長門州 下關, 周防州 上關, 伊豫州 大津懸, 大津城, 大阪城, 伏見城)은 작가의 경험 추이를 지시해 주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불과하다. 작품 속의 공간이 작가 의식의 변화나 작품 구성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看羊錄』에서의 공간은 다른 소재와 마찬가지로 작가 경험의 파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입란 배경의 동일한 소재를 갖고 있는 서사문학 특히 소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周生傳』에 등장하는 공간은 측주, 전당, 호주, 조선의 네 곳이다. 여기서의 공간은 소설의 구성과정과 그 진행을 같이 하며 도입, 전개, 절정, 결말의 분단을 결정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의식변화까지도 수반하고 있다. 즉, 소설에서의 공간은 작가와 상호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 있는 의식적인 공간인 것이다.

등장인물 또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설과 같은 인물의 창조나 성격묘사 같은 것이 매우 미흡하다. 서술자인 “나”는 일본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나 이를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 『看羊錄』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술자인 “나”가 포로체험 기간 동안에 만나게 되는 개별 인간들에 불과하다. 허구적 서사문학에서처럼 등장인물의 갈등이 새로운 사건을 유발시키고, 그 갈등의 해결을 위해 사건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이는 등장인물이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소재적인 기능 이외에는, 작품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看羊錄』의 소재들은 거의가 비작위적인 것이며 우발적인 것들이다. 이들은 단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시적 기능밖에 수행하지 않는다. 허구적 서사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역전현상이나 인물들의 반복적인 등장, 공간의 유기적인 짜임새,²⁶⁾ 사건의 복선적 기능 등 모든 소재와 소재사이에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看羊錄』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작품의 시작과 끝도 일정한 구도에 의해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체험 세계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작품도 끝을 맺는 서술진행의 한시성을 띠고 있다.

3. 움니버스 구성과 주제의 집중화

앞에서 『看羊錄』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체험 세계가 서술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첫째는 편년체적 서술방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기형식으로 서술한 ‘捕虜日記(日錄)’이다. 둘째는 적지에서 탐문한 적국의 정세나 형세 등을 기록한 疏, 錄, 檄書, 啓辭 등 일종의 보고문적 내용을 띤 기사체이다. 그런데 이들 부분들은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모여서 전체의 의미를 구축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한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독립된 글들이 그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포로체험의 실상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씌여진 것이다. 즉, 『看羊錄』은 다양한 기술양식이 혼효되어 있어면서도, 그 각각의 의미는 동일한 주제를 구축하고 있는 움니버스 구성형태를 띠고 있다. 그 이유는 글의 씌여진 정황으로 볼 때 ‘포로일기’가 꾸준히 씌여지고, 필요에 따라 중간 중간에 疏나 啓辭 등의 글이 씌여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럼 작품의 구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제 구축 방식을 살펴기로 한다.

『看羊錄』은 글의 편차가 「賊中封疏」, 「賊中聞見錄」, 「涉亂事迹」, 「告俘人檄」, 「詣承政院啓辭」로 짜여져 있다. 이중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은 「涉亂事迹」이고 나머지는 일종의 보고문과 격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涉亂

26) 실기문학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소설에서의 공간은 주인공의 의식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화된 공간이다. 이에 대해선 김중하, 「소설의 공간성연구 시론」, 『태야 최동원선생화갑기념논총』, 삼영사, 546-547쪽 및 이원홍, 「최치원전의 전기소설적 구조」, 『수련어문논집』 9집, 1982, 163-182쪽 참조.

事迹」은 시간적으로 1597년 2월 8일부터 1600년 5월 5일까지의 일들을 적은 글이다. 강항이 일본군에 피랍된 날이 1597년 8월 23일이니 그 앞의 5개월여 기간은 포로체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실제 이 기간은 5개월이지만 피랍되기 전 기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히 축약되어 있다. 나머지 약 2년 8개월의 기간의 일들도 그날 그날 빠뜨리지 않고 매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일부분만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기록된 날은 얼마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포로일기’인 「涉亂事迹」만 가지고는 강항이 경험한 포로체험의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涉亂事迹」에는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賊中封疏」나 「賊中聞見錄」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그 밖에 「涉亂事迹」은 산문과 시가 혼효되어 있다.²⁷⁾ 「涉亂事迹」은 사적인 체험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는 데, 그 이유는 공적인 목적에 관한 것은 기사체로 따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은 작품 창작의 의미와 함께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看羊錄』은 작품 저작의 의도가 다른 捕虜 實記文學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看羊錄』을 제외한 다른 捕虜 實記文學은 포로생활의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참담한 처지를 잊지않고 보존하며,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鑑戒的 敎訓을 주려는 개인적 차원의 기록정신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看羊錄』은 그날 그날의 파편적인 개인적 감정의 기록 보다는 적중에서 탐지한 각종 정보들을 조선에 알려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소한 개인적인 정감을 절제하고 있다.

「涉亂事迹」은 전쟁 와중에서 포로로 잡혀서 겪은 체험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술방식은 시간적인 순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소재로 매일 매일의 사건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포로체험의 일상사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기형식의 서술에는 날짜와 관계없는 특정한 내용을 집중적이고도 상세하게 서술하기 힘든 제약이 따른다. 가령 몇 달에

27) 詩는 모두 한시로 35편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강항이 직접 지은 것이 31수이고 나머지 4수는 시로 화답한 다른 사람의 글이다. 이처럼 산문과 시가 섞여 있는 것은 실제 체험을 산문만으로 기술한 것이 아닌 시적으로 보다 압축시켜 놓은 의미가 된다. 이는 『간양록』에 문학성을 더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쳐서 탐문한 적의 동정을 기록하고자 할 때, 정보를 얻게 된 날마다 조금씩 기록하기 보다는 모든 정보를 다 입수한 후에 일관되게 기록하는 것이 전담의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정보의 양이 상당한 분량이 될 때, 정보 수집을 완성한 그 특정한 날에 이를 모두 기록하기에는 일기라는 양식적 한계 때문에 전부를 기술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따로 독립시켜서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처럼 『看羊錄』은 일기의 양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로생활의 일상사는 일기형식의 글로 기록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집약 기술하고자 한 부분은 따로 독립시켜서 작가의 관심사를 집중화시키고 있다.

金山 出石寺의 僧 好仁이란 사람이 있는데, 자못 문자를 해독하였습니다. 신을 보고 슬프게 여겨 예우가 남보다 더했으며, 따라서 신에게 그 나라 題判(관청에서 백성이 올린 소장에 쓰이는 판결)을 보여 주었는데, 方輿, 職官을 구별하여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이기에 신이 곧 등사하였습니다. 또 듣기에 좌도의 아버지 白雲이 그 나라 輿圖를 가지고 있는데, 매우 자세히 갖추어져 있다기에 통변을 시켜 조사해 내고...²⁸⁾

위 글은 강항이 평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일본의 승려 好仁和, 성주인 좌도의 아버지인 白雲을 통해서 일본의 지도와 관직의 편제 등의 정보를 입수하고 선조 32년(1599년) 4월 10일에 왕에게 올린 소의 일부이다. 「賊中封疏」에 기록된 「倭國八島 六十六州」에 관한 사항은 「涉亂事迹」에는 없다. 오히려 「賊中聞見錄」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賊中封疏」의 일본에 대한 정보는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로서는 생소한 것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강항은 이를 개인적인 일기에 해당하는 「涉亂事迹」에 기록하지 않고 왕에게 소장을 올리는 글에 부기했을 것이다. 실제 「賊中封疏」에 부기되어 있는 「倭國八島 六十六州」는 삭제되어 있고 임진과 정유년 간에 전쟁에 투입된 일본군의 숫자 및 장수들의 명단과 그밖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계책이 적혀 있다. 이 내용은 「賊中聞見錄」에 비할 때 상당히 축약된 것이다. 아마 「賊中封疏」가 보고목적의 글이다 보니까 적에 관한 정보 중 필요한

28) 강항, 「적중봉소」

부분만 요약하여 초점화해 놓은 것일 것이다.²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看羊錄』의 구성은 일기형식의 繼起的 서술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 체험과 정감을 표현하고, 그 중 특별히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체 형식으로 따로 독립해서 초점화 시켜 보고형식의 목적성을 충족시키는 옴니버스 구성을 취하고 있다.

4. 상황진술과 정감표출의 詩文 혼효

『看羊錄』은 散文과 詩가 혼효되어 있으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구조를 띤다. 이때 산문이 어떤 사실이나 정보의 설명, 혹은 정황을 진술하는 기능을 한다면, 시는 정황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감회를 담고 있다. 특히 특정한 사건에 대한 개인적 정감을 토로하거나 처지를 한탄, 혹은 망향의 서러움을 나타내고자 할 때 시로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看羊錄』에 한시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시를 지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데도 이유가 있고, 자신의 능력을 일본인들에게 과시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자 한데 더 큰 이유가 있었다.³⁰⁾ 강항은 식자층에 속하는 유자이다. 때문에 그가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식과 문학적 재능이었을 것이다. 그를 억류하고 있는 번주들을

29) 이에 비해서 『월봉해상록』과 『만사록』, 『정유피란기』는 「포로일기」에서 이미 서술한 부분을 축약하여 기사체의 글을 남기고 있다. 이들 작품의 疏와 啓辭 또한 몇 년간의 피로기간을 술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어법 자체가 과거지향적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피로일기문에서 서술한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소와 계사는 피로일기문을 읽지 않았더라도 시공간의 변화는 물론 그들의 처참한 상황과 주위의 정황이 한눈에 조망되도록 요약적 제시가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간양록』의 구성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0) 포로 실기문학의 작가들이 일본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받은 대우나 생활상은 그들의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정경득의 『만사록』의 다음과 같은 귀절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생활적 여유를 짐작할 수 있다. “中源 및 子平과 바둑을 두며 소일했다. 포로된 사람들은 모두 왜도들의 집에서 복역을 하는데 우리들은 다행히 이를 면했다. 왜인 두목들은 항상 우리들을 조선 가객이라 부른다”(1598. 2. 11일.)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포로들 중 학식과 한시의 창작에 능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상당한 예우를 받았다.

포함하여 대부분의 일본 지배층은 작시능력과 학문적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존중했는데, 이때문에 강항은 다른 조선 포로와는 달리 상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³¹⁾ 정희득의 『月峯海上錄』에 작시능력의 중요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東首座가 古詩 여섯 수를 가지고 와서 보이며 말하기를, “그대가 이 시를 받아 지으면 생환을 바랄 수 있을 것이요.”한다. 이것은 그 중이 내가 과연 아킬만한 선비인가를 의심하여, 家政에게 잘 말해서 놓아 보내게 하고자 시험해 보는 것이었다. 내 어찌 차마 이런 경우에서 시를 지으리오마는, 돌아가 부친을 뵈옵는 방법은 오직 이 길 뿐이라. 껌싸게 지었더니, 그 중이 매우 기뻐하여 제법 아까와 하는 기색이 있었다.³²⁾

정희득은 戊戌年(1598)년 12월 그믐날 家政이 다스리는 南海島 阿波州에 도착하여 억류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여기서 醫僧 長延과 아파주의 高僧인 東首座를 만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비교적 편한 생활을 하게 된다. 동수좌는 아파주에서 명망있는 자로서 번주인 가정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월봉은 동수좌와 대면하면서 부모 형제가 치참하게 이별하게 된 일과, 부녀들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상당한 동정을 받게 되었다. 이는 모두 동수좌가 월봉의 재능과 작시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월봉은 그의 시적 재능으로 인해 그를 포로로 잡은 가정과 대면하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강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看羊錄』에 나타나 있는

31) 일본에서 한문에 능통하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승려들과 일부의 식자층을 제외하고는 그리 흔한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선의 포로중 학식과 문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에서 충족하지 못한 지적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시의 창작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현존 작품에 嘯和詩의 형식으로 남아 있는 시들 중 상당부분이 이들의 시들로 메워져 있다. 강항을 비롯한 포로 실기문학의 저자들은 그들의 시적 재능을 높이 싸 접근해 오던 일본인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의 정세나 지형 등을 파악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일본인들과의 창화시는 『간양록』에 비해 『월봉해상록』, 『만사록』, 『정유피란기』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

32) 『월봉해상록』, 「해상일록」, 무술년 2월 19일.

한시는 작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보장은 물론 조선인으로서의 문명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향이 지은 한시는 자신의 처지와 밀접히 관계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재의 대부분은 포로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한시는 포로체험을 시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포로일기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것이다.

『看羊錄』에 나타나고 있는 시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 형태는 1) 작가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충격이나 감흥을 적은 서정시 2) 다른 사람의 시에 화답하는 형식의 次韻時 3) 작가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미 예전에 동일한 체험을 한 사람이 적은 시를 차용하여 자기의 정감을 대신하고자 한 인용시 4) 작가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받은 답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看羊錄』에 나오는 시들은 시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는 그 맛을 상실하기 쉽다. 반드시 산문과의 상호 관련성 아래서 그 의미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한시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看羊錄』을 비롯한 捕虜 實記文學에 삽입되어 있는 시들의 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가) 4월 5일 맑음. 나는 5전의 銀子로 술과 안주를 풍성하게 갖추고 眞, 李에게 작별을 고하며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의 넓고 높은 사랑과 의리의 고마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중국, 곧 부모와 같은 나라에 왔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은덕은 뼈가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하고 자리에 다가앉아 술을 따라 공손히 석 잔을 권하니, 진, 이도 각기 자리에 다가앉아 공손히 담배로 석 잔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이역에서 한 번 보고, 배를 타고 만리 길을 같이 하였으니, 믿음직한 인정이나 사기 정의가 골육과 같았는데, 지금 이별을 하려고 하니, 이 마음 달랠 수 없다. 그래서 모름지기 나에게 이별시를 주어서 이별한 뒤에도 회상 할 수 있도록 남겨 두시오.”하기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절구를 읊어 부채에 썼다.

이역에서 만난 것은 추운 설달이러나,	相逢異域窮陰日
중국에서 작별함은 저무는 봄이구나.	相別中華春暮時
대산같은 그 은덕 어이 다 갚을손가,	丘山恩德將何報
바다같이 깊은 정을 시 한수에 남기노라.	滄海深情一首詩

진, 이가 읊고 말하기를, “시 가운데 점점히 겹친 뜻과 깊은 생각이 맥맥히 보이니 애석한 마음은 갑절이나 간절합니다.”하였다……(중략)³³⁾

33) 『금계일기』 선조 32년 4월 5일.

나) 10월 5일 숙형의 딸 예원이 병사했다. 9일 중형의 아들 가희도 병사했다. 그래서 형제가 짊어지고 나가서 물가에 매장했다. 우리 형제의 자녀 여섯명 중에 세명은 바다에 빠져 죽고 두명은 왜의 땅에서 죽었고 작은 딸 하나만 남았을 뿐이니, 정히 산두(토정의 아들 이산두)의 이른 바,

무고한 너를 죽게 만든 것이 오직 나의 죄라 致汝無辜惟我罪
백년토록 부끄럽고 원통해서 눈물 흐른다. 百年慙痛淚闌干

는 것과 같았다. 가련하고 슬퍼서, 도리어 그들이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다……(중략)³⁴⁾

앞부분의 인용문의 가)는 『錦溪日記』에 나타난 詩고, 나)는 『看羊錄』에 삽입되어 있는 시다. 『錦溪日記』에 나타난 시는, 작자인 魯認이 중국인 眞屏山, 李源滢의 도움을 받고 일본으로 탈출한 후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적은 시다. 만약 이 시가 『錦溪日記』의 산문들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면, 시의 화자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슨 까닭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지의 영문을 알 수 없다. 이 시는 산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看羊錄』의 시는 체험자가 일본에서 죽어간 어린 조카를 땅에 묻을 때의 원통한 심정을 다른 사람의 시를 인용해 서술하고 있다. 작자 강항은 어린 혈육이 만리타국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 처절함이 너무나 컸기에 스스로 作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 귀절을 인용해와 그 마음을 달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는 이산두의 시가 애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 하더라도, 강항이 경험한 처절한 상황과 결부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진지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

이처럼 『看羊錄』, 『錦溪日記』를 비롯한 『月峯海上錄』, 『萬死錄』, 『丁酉被亂記』에서의 詩材는 그날 그날의 사건들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 나오는 시는 그 소재적인 측면에서 산문과 불과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산문과 운문이 서로 혼효되어 나타나는 문학형식으로 傳奇小說이 있다. 이들 작품에 나오는 삽입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시들이다. 삽입시는 1) 앞으로 야기될 사건을 예시적으로 고지하며 2) 사건의 발단 즉 만남이라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시를 삽입시켜 의사전달의 통로가 되게 하고

34) 『간양록』, 「섭란사적」.

3)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구실을 하거나 4) 작품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능을 한다.³⁵⁾ 이와 같이 전기소설에서 나타나는 삽입시는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있어 단순한 장식적 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문과 동등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전기소설에서 삽입시가 생략되어 버린다면 작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의미전달도 완전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서 『看羊錄』을 비롯한 捕虜 實記文學에서의 삽입시는 생략되어도 전후의 문맥과 의미전달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작가는 이미 산문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한 대부분의 사실을 이미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捕虜 實記文學에서의 漢詩는 시로서 독립적인 생명력이 약하다는 측면에서는 전기소설에서의 삽입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작품 내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전기소설의 삽입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看羊錄』의 시들은 이미 서술되어 있는 산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미전달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썩여진 개별 한 시보다는 의미전달면에서 소통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看羊錄』의 시는 작가의 감정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로 극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시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자 한 의도에서 썩여진 것이 많다.

『看羊錄』에서의 산문은 사실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작가의 감정이 격앙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격앙된 감정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詩化하여 감정을 순화시키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한다.

李曄(전라 좌병영의 虞候)은 청정에게 사로 잡히자, 청정은 수길에게 보내니 수길은 대우하기를 지극히 후하게 하여... 이엽은 임진 년에 사로잡혀 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배를 사서 서쪽으로 도망하였다. 일행이 적관도에 도착하자 추적하는 적들이 이미 그곳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이엽은

35) 민병수, 「한문소설의 삽입시에 대하여」, 『한국고전산문연구』, 1981, 동화문화사, 467-476쪽 참조. 삽입시가 전기소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현홍의 앞의 논문 참조.

칼을 빼어 자살, 바다 가운데로 떨어졌다. 적은 이엽의 시체를 끌어내고, 나머지 사람과 함께 거리에서 수레에 사지를 걸어 찢어 죽였다.… 나는 이를 듣고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마에서 땀이 뚫었다. 아, 무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장군의 기개야말로 하늘 같이 길고 진데	將軍氣概與天長
어느 사람 바빠 도망갔다 뒤집어 말하네	何者麟論此去忙
의골은 혼연히 동해 밑에 잠겼는데	義骨樂沈東海底
맑은 바람은 멀리 수양산을 대었구나	清風遙接首陽山
매달린 머리, 비를 맞아 씻기는게 좋을지니	竿頭好受秋霖洗
흙에 묻혀 무엇하리 변방 풀 목을텐데	埋土寧教塞草荒
만권의 글을 읽은 서생이 면목 없네	萬卷書生無面目
두 해를 궁핍에서 저양을 먹이다니	兩年窮髮牧羶羊 ³⁶⁾

위 시에 대한 내용은 『看羊錄』의 「賊中封疏」에도 나오는 데, 그 서술이 「涉亂事迹」보다 훨씬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게 드러난다. 강항은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은 자와 산 자 구별함이 없이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일본인의 잔인함을 보고 같은 포로의 처지에서 두렵기도 하고 증오감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에서는 이러한 증오감과 적개심은 상당히 순화되어 있고, 오히려 이엽의 죽음을 애닦음과 서러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용기있는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이엽의 죽음을 단순히 동족의 억울한 죽음으로만 보지 않고, 그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자기의 문제로 수렴시키고 있다. 강항은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이엽의 죽음을 통해 재인식함으로써 儒者로서의 절조를 흐트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을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문제로 승화시킴으로써 문인으로서의 자기 책임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는 데로 귀결된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세 번에 걸쳐 탈출을 시도한 것이라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다른 사람을 통해 일본의 사정을 조정에 알려려고 시도한 노력이 이를 증명한다. 이처럼 『看羊錄』에 삽입되어 있는 시는, 산문으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분노와 적개심을 시적으로 승화시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정화시켜

36) 『간양록』, 「섭란사적」.

주는 기능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看羊錄』의 서술구조와 그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논의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看羊錄』은 임란이라는 역사의 현장에서 겪은 처절하고도 생생한 체험을 잊지 않고 보존해야겠다는 작가의 記錄精神과 歷史意識의 소산이었다. 따라서 작품의 예술성보다는 소재의 현장성과 참신성 그리고 경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작가 정신이 작품의 의미를 구축하는데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看羊錄』은 작가가 경험한 생체험이 독자에게 사실적 실감과 감정의 동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문학적 성격이 특징지워진다. 즉 픽션문학에서는 작품외적 현실과 작품내적 질서가 일치하지 않고서도 문학적 진실이 구현되는 데 비하여, 『看羊錄』은 작품외적 소재나 사건을 작품내적 질서 위에 어긋나지 않게 배치함으로써 문학적 진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전적으로 체험자의 시각에 의한 서술로 일관되기 때문에 사건과 사건, 소재와 소재, 인물과 인물 사이의 유기적 긴밀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작품의 시작과 끝이 계획된 일정한 구도에 의해서 구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체험 세계의 시말과 함께 작품의 시작과 끝이 결정되는 서술 진행의 限時性 때문이었다. 따라서 『看羊錄』은 소설을 비롯한 픽션문학에 비해서 서술의 짜임새가 치밀하지 못하고 논리적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看羊錄』의 구성은 일기형식의 편년체적 서술을 통해 포로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생활 체험과 정감을 표현하고, 그 중 특별히 관심있는 사항은 기사체 형식으로 독립시켜 작가의 관심사를 초점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옴니버스 구성은 일기형식의 정감성과 보고형식의 목적성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화시키는 장점이 있었다.

4. 『看羊錄』에는 35편의 시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산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看羊錄』의 한시는 독립적인 생명력이 약하다는 측면에서는 전기소설에서의 삽입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작품 내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전기소설의 삽입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看羊錄』의 시들은 이미 서술되어 있는 산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의미가 파악되기 때문에 산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씌여진 개별 한시보다는 의미전달면에서 소통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看羊錄』에 삽입되어 있는 시는, 산문으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작가 내면의 분노와 적개심을 詩的으로 昇華시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순화시켜 주는 自己 淨化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간양록』의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간양록』의 문학적 의미를 더 밝히기 위해서는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는 작가의 포로체험과 그 세계관도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간양록』의 서술상의 특징이 다른 포로 실기문학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해서 밝히고자 한다.